

자신을 탐구해 성공한 화가
『앤디워홀』



박희숙

- 서양화가
- 성신여자대학교 조형산업대학원 미술석사
- 주간 이코노믹 리뷰 『박희숙의 명화읽기』 연재
- 월간 조선 『인물연구』 연재
- 강릉대학교 산업공학과 출강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말도 있듯이 성공하고 싶다면 자신이 무엇을 가장 잘하는 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적성과는 상관없이 시대 조류나 성공한 사람을 맹목적으로 쫓아가서는 안 된다. 앤디 워홀은 화가로서 성공을 하고 싶었지만 기존의 방식은 거부하고 자신이 관심이 있었던 것을 탐구해 그 토록 원하던 성공을 거머쥐었다.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이민 온 가난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난 앤디 워홀은 피츠버그에서 미술 학위를 받은 후 뉴욕으로 이주한다. 뉴욕에서 앤디 워홀은 미국 소비문화를 광고에 접목시켜 상업미술가로서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가 바라던 최종적인 목표는 아니었다. 앤디 워홀은 목표를 바꾸어 가장 미국적인 것, 즉 일상의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회화 작품을 선보이면서 1960년대 미국에서 부상한 팝 아트의 공동 설립자가 되었다. 팝 아트는 당시 미국의 미술계를 휩쓸고 있던 추상표현주의 대안으로 부상한 미술사조다.

앤디 워홀이 작품 중에 미국의 상징하는 대표적인 작품이 <80개의 2달러 지폐-앞면과 뒷면>다. 이 작품은 2달러 지폐 40장으로 구성되었는데 달러는 앤드 워홀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로서 돈은 신과 같은 존재라는 의미다. 현대의 신은 돈이라는 이야기다.

실크스크린의 작업을 통해 실제의 돈과 가짜의 돈과 차이가 없다. 이 작품에서 실제의 돈과 가짜의 돈은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가치를 떠나 상업적 가치



<80개의 2달러 지폐-앞면과 뒷면->
캔버스에 실크 스크린, 210*96, 쥘
르 루트비히 미술관 소장

를 나타낸다. 차이가 있다면 은행권의 80달러보다 앤드 워홀의 이 작품이 상업적 가치가 더 높다는 사실이다. 앤디 워홀은 이것을 정확하게 돈으로 표현했다. 80달러의 지폐를 묘사하면서 자신의 지적인 가치를 높였다. 이전의 화가들은 지적인 가치와 물질적인 가치의 불일치 허구를 냉정하게 노출하지 못했다. 미술작품의 가치는 미학적인 질로만 표현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앤드 워홀은 이 작품에서 미술품의 가치는 작가의 명성에 의해서도 좌우된다는 것이다.

앤드 워홀은 화가로서의 성공만 꿈꾸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스타를 동경해 어린 시절부터 영화잡지를 수집하면서 스타가 되고 싶다는 꿈을 키웠으며 평생 목표를 잊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앤디 워홀은 화가로 성공하는 순간부터 웬만한 파티에 참석 할 수 있으면 다 했고 언론에 등장할 수 있는 일이면 대중적인 사건을 놓치지 않고 등장했다. 그는 대역을 통해 등장하기까지 했다. 광대한 미국에서 모든 파티를 혼자 소화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첫 번째가 '첼시의 소녀들'이란 영화 제작자로서 영화 성공을 축하하는 파티에서 두 번째는 미국의 여러 대학에서 강연이었다. 그는 친구를 자신의 모습을 분장시킨 뒤 앤드 워홀로 활동하게 했을 정도다.

앤디 워홀이 할리우드 스타를 그린 대표적인 작품이 <마릴린>이다. 앤드 워홀은 작품의 모델로 특히 마릴린 먼로는 좋아했는데 그는 먼로가 죽은 후 그녀를 모델로 선택했다. 그녀의 죽음은 영화 속 섹스의 화신을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버렸으며 사후의 명성이 생전의 인기를 뛰어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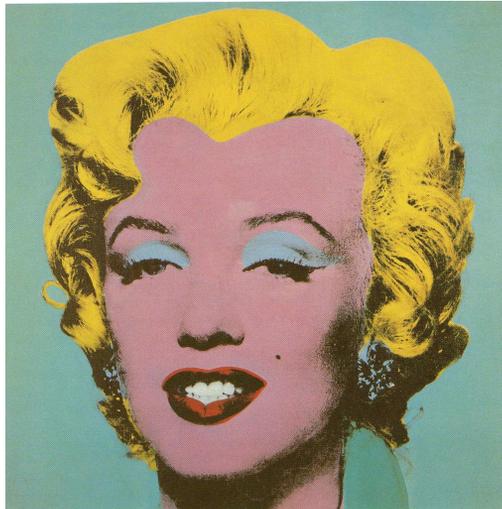
하지만 앤드 워홀이 먼로를 선택한 것은 영화 속 이미지보다는 먼로가 자

신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던 신화였다. 그녀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그것은 스타와 동일시하던 앤드 워홀과 맞았다. 앤디 워홀도 필요에 따라 자신의 어린 시절을 각색해서 인터뷰했다.

이 작품은 빛과 그림자로 만들어진 스타가 현실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앤드 워홀은 광고 디자이너로서 경험을 살려 대량생산 할 수 있는 실크 스크린 기법으로 작품을 제작한다. 실크 스크린을 이용한 방식은 현대 미술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르네상스 이후 미술의 개념은 화가의 특별한 독창성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앤디 워홀은 실크 스크린으로 미술과 기술의 차이를 구분할 수 없게 만들었다. 즉 예술을 위한 미술에서 해방되어 어떤 방식으로든 미술가들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앤디 워홀<1928~1987>은 예술가로서 명성을 얻기 위해 노력한 유일한 팝 아트 예술가로서 그는 혁명가는 아니었지만 충격의 변화를 만들어갔다. 그는 자신을 위해 온갖 형태의 미디어 작품을 만들면서 시대 욕구에 적절하게 반응했다.



<마릴린>-1964년, 캔버스에 실크 스크린, 101*101, 개인 소장